조계종,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 봉행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0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대덕 · 혜덕,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 품서식은 지난 10월 7~8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2016년도 2급 ·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37명 · 비구니 14명에게 대덕 · 혜덕 법계를,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125명 · 비구니 161명에게 중덕 · 정덕 법계를 품서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대독을 통해 "불조의 혜명을 잇고 요익중생에 앞장서야 한다. 초심으로 수행과 중생제도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20여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느낀 환희심과 출가원력을 되새겨 한국불교 중흥의 새바람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이날 새로 법계를 품서 받은 스님들에게 가사를 전달했으며, 법계를 품서 받은 스님들은 가사 정대와 장궤 합장 후 불법 홍포를 서원했다. **김주일 기자**

1700년 한국불교문화 접한 佛, "존경" 극찬

조계종, 10월 26일 프랑스 파리서 사찰음식 리셉션 개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스님들의 법고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어진 사찰음식 향연에서는 프랑스 정치 · 문화계 인사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50여 명의 한국불교 대표단은 10월 26일 프랑스 파리 '메종 드 라 뮈뛰알리떼' 극장에서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1700년 한국 전통산사와 수행자의 삶'을 주제로 열린 리셉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리셉션은 조계종 의례 의원장 인묵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들의 '산사의 하루' 공연으로 시작했다. 공연에서 법고, 범종, 목어, 운판 등 불교 사물 시연은 참석한 파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산사의 하루'는 전통 사찰에서 행하는 일상 의례를 공연화 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 첫 선을 보였다. 스님들은 도량석과 부처님께 올리는 새벽예불, 참선, 울력, 발우공양 등을 직접 시연했다.

시연에 이어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이 세상 전쟁위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테러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과 더불어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세계평화 이룩하자"고 축원했다.

공연 후에는 본격적인 사찰음식 만찬이 이어졌다. 연근 죽과 백김치, 두부 발효음식, 연밥 등 자연의 맛을 살린 20여 가지의 음식이 상에 오르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25~30일 한국불교 대표단 파견

프랑스 정치 · 문화계 300명 참석

세계적인 셰프, 사찰음식 높게 평가

자승 스님 "불교문화 널리 알릴 것"

이날 사찰음식 만찬을 총괄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위원 선재 스님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몸에 에너지를 깨워주는 음식이자, 자연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수행식"이라고 소개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설정 스님(사진 가운데)이 법문 표구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프랑스의 음식전문가들은 사찰음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브노아 니콜라 패랑티 셰프는 "그동안 한국 음식이나 사찰음식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든 이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나와 음식의 관계를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필립 오구를트 르꼬르동 셰프도 "불교의 사찰음식은 유기농과 자연주의를 따르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일맥상통하므로 결국 세계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 수행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앞에 음식이 놓이기 위해 이뤄졌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한다"며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나만의 건강과 욕망을 채우기보다 수많은 인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스님은 "지금 세계는 각자 처지와 입장만 내세워 갈등과 분열 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찰음식을 함께 맛보며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인연들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 대사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자승 스님과 모든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찰음식 대가이신 선재 스님과 공연을 보여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리셉션에 앞서 25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한국불교문화전시회를 개최한 조계종 방문단은 27일 쟝 뱅상 뽈라세 국가개혁 장관 면담과 INALCO 대학에서 설정 스님의 한국불교 강연, 르 꼬르동 블루 조리학교에서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을 진행했다. 또 27일 저녁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 주최 만찬을 진행했으며 28일부터 29일까지 사찰음식 특강과 한국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이어갔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립 금강대 11월 총동문회 출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서 D등급을 받으며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천태종립 금강대가 개교 14년 만에 총동문회를 출범한다. 교원 · 동문회 · 재학생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8시 대강당서 총동문회 출범식을 열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에는 한광수 총장을 비롯해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 교수 및 졸업생 ·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진행과정에 있어 분명 아쉬운 점은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금강대는 출범식 이후 교내 식당서 선후배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졸업생 · 재학생 간담회를 연다. 아울러 총동문회와 협의를 통해 평의회 · 이사회 참여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윤호섭 기자**

직선제 · 황혼기 출가제 도입 관심

제207회 정기회서 처리 예정… 후반기 의장 원행 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7회 정기회가 11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가운데, 처리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원 구성 직후 종헌 개정안, 종법 제 · 개정안,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 직영 · 특별분담사찰,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종정감사, 불기 2561(201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인사안을 다룬다.

가장 먼저 종헌종법 제 · 개정안은 총무원장선출제도와 관련한 2건의 종헌개정안이 접수됐다. 총무원장선출제혁신특위와 직선선출제특위가 올린 안건으로 총무원장선출제혁신특위가 제출한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일명 '염화미소법'인 추첨제다. 후보자 등록 후 갈마위원회를 거쳐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를 놓고 후보추천인단의 투표로 다수득표자 3명을 후보자로 확정한 뒤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후보자 3인 가운데 무작위추첨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추천인단은 700여 명 안팎으로 복수투표로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선출제특위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은 법계 중 · 정덕 이상의 비구 · 비구니 8000여 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곳이 골자다.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은 현재 입법 취지에 대한 종도 여론조사가 전문기관에 의해 진행 중에 있다. 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10월 말 경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직선제 특위는 당초

직선제 여론조사 자료 눈길

은퇴자특별법 제정안 상정 예정

종회에 여론조사를 비롯한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기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출가 특위는 비공식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갖고 특수출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출가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은퇴자들이 종단 내 수행 · 포교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승려가 되기 위한 수계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가특위는 10월 8~15일 7박 8일간 종단 최초로 진행된 '황혼기 단기출가학교'의 운영 상황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황혼기 단기출가학교에는 총 58명의 고령자들이 입소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월정사 연수국장 적엄 스님은 "평균연령이 65세이지만 새벽 4시 시작하는 행자생활을 빠짐없이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계종 총무원이 설악산 봉정암을 특별분담사찰에서 해제하는 안을 의안으로 제출했으며, 204회 정기회서 이월된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205회 임시회서 이월된 지방종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한편, 이번 정기회는 개회 직후 새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종회의원 최대 인원을 보유한 불교광장은 10월 18일 후반기 의장으로 원행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추천키로 하는 등 인사안을 확정한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내년 '복지' 위해 뛴다

10월 25일 운영위서 내년 사업계획 논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내년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증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0월 25일 제2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증원을 비롯해 비구니 종회의원 제명 후속조치,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증여받은 자비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구니 근본도량으로 지정하고,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장 도혜 스님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여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복지 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동국대 의료원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으로 종합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우선적으로 검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여성 질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해 100명 정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왕진 등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0대 운영위원장과 현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 제명 등을 결의한 9차 총회와 20차 운영위원회 결의를 재차 확인하고, "현 종회의원들은 결원 상태이므로 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향후 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결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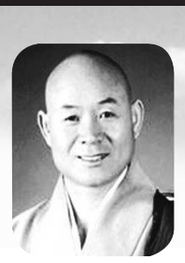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현 비구니 종회의원 문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안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차 운영위원회를 2017년 2월 21일에, 제10차 정기총회를 2017년 3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